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김영아*

1. 머리말

호주의 한국어 교육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호주 정부의 아시아 언어와 아시아학에 대한 정책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¹⁾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ANU를 제외한 7개 대학이 이 보고서 후에 한국학과가 설립되었는데 1994년부터 한국어가 NSW 주와 Victoria 주의

* 호주 모나쉬대

- 1) The Asian Studies Council's National Strategy for the Study of Asia in Australia(1988), the Ingleson Report(Asia i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Asian Studies Council, 1989)와 Garnat Report(Asia and the Northeast Asian Ascendency, 1989)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보고서 안에는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항이 있는데, 모든 호주학생들이 아시아의 역사, 지리,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아시아 언어 한 가지를 가르쳐야 하며, 특히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의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Australian Research Council의 연구비 책정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연구에 우선 순위를 줄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연구되지 않은 한국, 대만과 관련된 연구를 장학금 제도를 통해 장려할 것을, 그리고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학 센터를 세울 것을 그 추천 사항으로 내놓았다.

대학 입학 시험인 Higher School Certificate와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에 각각 선택 과목으로 시행되었으며, 1996년에는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에서 발표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아시아 우선 순위 언어 네 가지(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호주의 한국학과들은 대부분 10년 내외의 짧은 역사와 7개 대학²⁾이라는 적은 대학 수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 향상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교재 개발을 들 수 있다.

호주의 교재 개발은 각 대학 자체의 개발과 공동 개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의 자체 개발은 크게 90년대 전반기 기초 과정의 교재 개발과 90년대 후반기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자료의 개발로 세분될 수 있다. 주로 1990년대 초반기에 시작된 교재 개발은 기존에 나온 교과서들이 호주 교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한국학 연구소 Adrian Buzo와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신기현의 *Learning Korean: new directions*,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심규석의 *Korean for Communication*, Monash University 조인정·김영아의 *Talking to Koreans*와 듣기 교재인 *Korean through Active Listening* 등을 들 수 있겠다. 1990년 후반기에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 교재 개발로 조인정·김영아의 [KoreanIII.edu.au](http://www.arts.monash.edu.au/korean/korean3/index1.htm)(<http://www.arts.monash.edu.au/korean/korean3/index1.htm>)³⁾ 및 일학년 일학기 온라인 교재인 KOR111

2)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는 스윈번 공과 대학이 2000년부터 한국어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8개 대학에서 7개 대학으로 감소하였다.

3) 이 프로젝트는 DEETYA 지원의 Innovative teaching of Asian Languages of low enrollment Korean, Thai, Vietnames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0: Introduction to Korean, Part 1(<http://www.arts.monash.edu.au/subjects/korean/kor1110/index.html>)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공동 교재 개발은 호주 정부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에 앞서 1994년에 호주의 각 한국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교재 현황과 문제점 및 개발 방향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교재가 거의 기초 중심인데 한국어 교재의 시장성 때문에 중급·고급 단계(대학 3학년)는 교재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중·고급 교재 개발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보조 교재로는 듣기 교재밖에 개발되어 있지 않아 다른 보조 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다양한 보조 교재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 학습 자료, 비디오, 문화 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 3월부터 여러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계획대로 1997년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하게 되었다.

(도표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프로젝트(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oject)

Project title	Co-ordinator	Team members
The development of a Korean language interactive book for the advanced level	Young-A Cho Monash University	Duk-Soo Park : The university of Sydney ; Min-Ja Kim :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Kyu-Suck Shin(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A reader in Korean for the advanced level	Kyu-Suck Shin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Young-A Cho : Monash University Gi-Hyun Shin :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4) 이 프로젝트는 Monash 대학교 문과 대학의 Teaching Initiatives Fund, 1999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Project title	Co-ordinator	Team members
Development of Computer Aided Learning Material for Korean	Chong-won Kim : Griffith University	Min-jung Lah (Griffith University)
Development of Visual Resource Materials f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Jae-hoon Jung : Griffith University	
Development of Ancillary Cultural Materials for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A consortium of Sang Oak Lee : University of Sydney Seong Chul Shin :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Hyun Chang :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Completion of Learning Korean : New directions series of Textbooks	Adrian Buzo : Swinburne & Monash University	

이상으로 간략하게 호주 대학의 교재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호주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다양한 교재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큰 문제점인 교재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교재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2.1. 공동 개발 시의 문제점과 해결 과정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온 주제의 하나가 교재 개발인 것은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의사소통에 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재 개발에는 의사소통 교수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청각 자료나

컴퓨터 학습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한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프로젝트에서는 중급·고급 단계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 학습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공동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Griffith University의 컴퓨터 보조 학습자료와 비디오 학습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발이 여러 대학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졌다. 물론 컴퓨터 보조 학습자료와 비디오 학습자료가 한 대학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동 참여의 경우는 다양한 요구의 수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대학이 참여하여 개발된 학습자료이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Korean language interactive book for the advanced level*의 개발을 중점으로 논의하겠다.

(1) 지역적 문제

흔히 지역적 문제라고 하면 언어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어 화자나 일본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로 인해 겪는 어려운 점이나 문화 차이 등을 어떻게 교재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 문제는 호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각 대학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통신의 발달로 실제적인 거리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서 의견 등을 어느 정도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적 차이는 각 대학의 교육 환경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시드니를 제외하고는 호주는 교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의 한국어 수강 학생은 거의 호주 학생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프로젝트는 호주의 대학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언어 수준 및 배경이 대학마다 달라 교재 개발의 초기 단계에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개발된 과제 중에 사물놀이, 태극기, 전통혼례 등은 교포가

없는 대학에서는 거의 쓰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반대로 어느 과제는 3학년 과정에서 쓰기에는 너무 쉽게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개발 초기에는 각 개발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 이 차이야말로 교재 개발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각 대학이 실제 수업 현장에 맞도록 필요한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 '교재 은행'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교재 개발에 참여한 4개의 대학이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력 수준을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주제 및 기능을 중심으로 각 20개의 학습 과제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총 80개의 과제 형식의 학습 자료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교재 은행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 수립자가 학습 목표 및 필요에 따라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력 수준 및 요구에 맞추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록 참조).

(2) 체제의 통일성과 유연성

각 개발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 학습자의 수준별로 교재를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성은 어느 정도 만족 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통일성이 결여되기 쉽다. 또 자칫하면 중복된 주제나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개발하기 쉬운 과제만 개발되기 쉽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이 서로 개발하기 전에 주제와 기능 등을 먼저 발표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통일성과 유연성의 조화라고 볼 수 있는데 유연성을 위해서 각 과제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중요한 골격만 통일한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목차에 과제 제목, 주제, 수준, 기능 등을 밝혀 놓았고 문법 색인을 부록에 실었다. 또 단행본으로 된 교재뿐만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교재를 각 대학에 배포하여 그 대학에서 필요하면 수정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제의 통일을 위해 세운 원칙으로는 각 과제를 한 주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할 것, 과제명과 기능, 수준 등을 명시할 것, 문법 사항과 단어 및

표현은 각 과제 끝에 놓을 것 등이다. 체제 통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지문을 한국어로 하느냐 영어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문을 영어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문이 실제로 수행하는 과제보다 어려워져서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문을 한국어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3학년 정도에서는 지문을 이해하여야 하며 지문이 계속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어렵지 그 후에는 학습자가 지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논의 끝에 한국어로 지문을 쓰기로 결정이 되었다. Monash 대학교에서 실제 사용 결과, 3학년 과정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개발된 과제 중 쉬운 과제를 골라 2학년에 쓴 결과 지문이 더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체제 통일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문법 용어의 통일이었다. 특히 동사와 형용 동사로 나눌 것인지, 동사와 형용사로 나눌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랜 논의 끝에 동사 어간(AVST)와 형용 동사 어간(DVST)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과제는 이 형식을 따라 집필되었으나 몇몇 과제는 그 과제의 특성상 문법 사항을 먼저 넣은 경우도 있고 지문을 한국어와 영어 둘 다 쓴 경우도 있다.

2.2. 개발된 교재와 쓰이는 교재

호주 대학 한국학과 거의 모든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여 호주에서 필요한 교재가 어떠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 끝에 그 필요성에 따라 여러 교재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모든 교재들이 모두 다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교재가 쓰여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교재 개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된 교재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는 *Korean language interactive book for the advanced Learners*와 *A reader in Korean for the advanced Learners*이다. 그러면 이 교재가 왜 다른 교재에 비해서 많이 쓰이는지 또 쓰이지 않는 교재는 어떤 이유에서 쓰이지

않는지 살펴보자.

첫째, 정책적인 측면과 인적·물적인 실질적인 제약 요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제약 요건이 교육과정을 결정한다고 보았을 때(Johnson, 1989) 교재의 선택도 이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호주의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이 한두 명의 교수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학생들과 학습 활동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한두 명의 교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모든 단계에 교수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유동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재의 도입은 교육과정을 다시 계획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보통 대학교는 교수들에게 교수(teaching) 30%, 연구 30%, 행정 30%, 사회 봉사 10%를 요구하는데 실제 승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실적이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점점 더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재가 손쉽게 기존 교육과정에 통합이 된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 교재의 선택을 망설이게 된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다시 계획하여야 하는 교재의 도입은 연구 시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 즉 학생과 교수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고 보았을 때 새로운 교재는 도입 단계에서는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교수나 학생이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다. 보통 컴퓨터실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한글 윈도우는 쓸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윈도우가 아닌 영문 윈도우에서 한글을 보거나 입력할 때 다른 프로그램들과 충돌을 해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학습에 흥미를 잃기 쉽다. 따라서 담당 교수가 컴퓨터를 잘 모를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교재의 도입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교재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전통적인 교과서의 양식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전통적인 교과서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 평가와 관련지어 쉽게 평가 내용에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제 형식의 교재는 언어 영역의 4가지 영역 중 주로 듣기와 말하기를 독본 형식의 교재는 읽기와 쓰기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 있으며 이를 용이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교재들은 한국어 향상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평가와 관련되기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업파급 효과(Washback)를 가져오기 힘들다 (Alderson and Wall, 1993 ; Morrow, 1986 ; 김덕기, 1996 ; 김영아, 1996).

평가는 교과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구성이라든지 평가 방법, 평가 척도가 수업 파급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제 형식의 교재와 독본 형식의 교재 외의 교재들은 시험의 구성, 평가 방법, 평가 척도 등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시험 결과보다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사 소통 능력 배양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는 다양한 학습 교재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히 한국어가 대학 과정의 일부일 경우는 의사소통 배양보다 학점에 관심이 더 많다. 따라서 직접 평가되지 않는 교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수업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개발된 비디오 교재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교재가 기존 교육과정에 잘 통합되지 않으면 이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재 설계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사용되지 않게 된다.

셋째, 한국어 교육에서는 잘 논의가 되지 않는 문제인데 학습량도 교재의 선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학에서의 한국어는 대학 과정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학습량의 결정도 대학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Monash 대학교의 경우 한국어를 전공하려면 1학년, 2학년에 12학점씩, 3학년에 24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한 과목당 6학점씩이다. 이 경우, 평가는

4,500자에 해당하는 언어 영역에 맞추어서 시험 및 과제로 할당되어야 하며, 6학점의 경우 학생들은 수업과 수업 외 활동(수업 준비, 숙제 등)까지 포함해서 총 12시간이 학습량으로 정해져 있다. 실제 수업 시간은 1학년의 경우는 한 과목 당 5시간, 2, 3학년의 경우는 4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과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킨토시용으로 개발된 컴퓨터 학습 자료가 매킨토시를 사용하는 대학에서도 쓰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투자에 비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선택하는 교육자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수업 활동이나 투자에 비해 얻는 학습 효과가 적은 학습 자료로 판단되면 개발된 교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넷째, 교수 자신이 혹은 그 대학에서 개발된 교재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 과제 형식의 교재나 독본 형식의 교재가 다른 교재보다 더 많이 쓰이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대학에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애착뿐만 아니라 교재 구상시 학습자의 학습 목적, 필요성, 언어 구사력 등을 다 감안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는 교재 개발자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onash 대학교 3학년 과정에 쓰이는 교재를 위해 2학년말에 학생들에게 *A reader in Korean for the advanced Learners*에서 3학년 과정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고르게 했는데 고른 자료의 대부분이 Monash 대학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Griffith 대학에서 개발한 컴퓨터 보조 학습 자료는 그 대학에서 쓰는 매킨토시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매킨토시를 쓰지 않는 대학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실제 자료에 관한 문제이다. Griffith 대학에서 개발한 비디오 학습 자료 "Interactive Korean Through Video"는 필자의 견해로는 지금까지 나온 비디오 학습자료 중 제일 실제 자료에 가깝도록 제작된 자료이다. Monash 대학교에서 3학년 과정에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이 비디오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이 비디오에 대해서 전반부 비디오

는 쉽고 재미있지만 후반부는 호주 학생들의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고 한국 사람들의 대화는 너무 길고 재미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와 동시에 실제 비디오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습 환경이 실제 자료를 접하기 힘든 호주 상황에서는 교육적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 자료에 가까운 비디오보다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실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실제 자료가 학생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와 관련하여 *Ancillary Cultural Materials for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를 보면 이 학습 자료는 문화에 관한 설명 (fact about culture)과 더불어 과제 활동 중심으로 1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제에도 실제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 언어 학습 시 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목표 언어 화자를 접할 때 태도, 이해, 그들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언어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문화를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접적인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나온다(Brosh, 1997).

따라서 학습자에게서 그 사회나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의 사용이 중요한데, 이 실제 자료를 교재의 형식으로는 개발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따른다. 바람직한 것은 실제 자료의 비디오를 학습에 맞도록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지적 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현 시점에 맞춰 이를 계속 제작하기란 쉽지 않다.

요약하면 자신이 혹은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기관에서 개발한 교재가 없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 개발한 교재는 쓰이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개발된 교재일 경우 학습량, 학습 파급 효과, 현 교육과정과의 통합 용이성, 실제성과 문화가 반영되지 않은 교재는 쓰일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3. 개발 방향

개발된 교재와 쓰이는 교재는 앞으로 교재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 방향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개발되는 교재에는 학습량, 학습 파급 효과, 현 교육과정과의 통합 용이성, 실제성과 문화가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과정 수립자가 학습 목표 및 필요에 따라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력 수준 및 요구에 맞추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 은행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못지 않게 앞으로의 교재는 현재의 학습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활동할 사회의 동향도 수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사회는 학습자에게 “평생 교육”과 “전어 가능한 기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평생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학습 의욕(motivation)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Knapper, 1996). 이상적인 평생 교육 학습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역량
- 현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여러 출처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
- 각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 사용 능력

또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읽기
- 쓰기
- 수리적 사고 능력
- 그룹 안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
- 그래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communicating with graphic display)
-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앞에서 열거한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는 교재 혹은 학습 환경이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학습 환경은 '컴퓨터 사용'을 시사하고 있는데 앞에서 개발된 교재와 쓰이는 교재를 설명하면서 컴퓨터 학습이 수업 활동이나 투자에 비해 얻는 학습 효과가 적은 학습 자료로 판단되는 경향이 이 컴퓨터 학습의 도입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잘 쓰이지 않는 컴퓨터 학습 자료는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여러 출처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연습을 학습자에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새로운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된 교재 중 쓰이는 교재가 교과과정 수립자가 학습 목표 및 필요에 따라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력 수준 및 요구에 맞추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 은행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재를 개발하거나 혹은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는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재 은행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접근법에 근거를 둔 것인데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요지는 학습을 지식을 수용하는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상호 그룹 활동과 '풍요로운 학습 환경(rich learning environments)'은 구성주의에 입각한 학습 모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Roblyer, Edwards and Havriluk, 1997). 따라서 Monash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재 개발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 접근법에 근거를 두고 "학습자료 센터(resources centre)"를 구축하였다(Cho, 2000).

Monash 대학교 학습 자료 센터는 학습자가 교재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 진도 혹은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컴퓨터 매개 통신(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상호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바로 구성주의와 Knapper(1995)가 제시한 전이

가능한 기술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학습 자료 센터는 온 라인(on-line) 방식인 이메일, 웹 게시판, 메일링 리스트 등의 사용과 오프 라인(off-line)인 학습 센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학습 관련 자료의 사용이 둘 다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 웹사이트 (<http://www.arts.monash.edu.au/subjects/korean/kor1110/index.html>)에 가서 단원 별로 학습할 수도 있고, 학습 자료센터(<http://www.arts.monash.edu.au/korean/centre/resources/index.html>)에 가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학습할 수도 있다. 이 학습 자료 센터는 한글 익히기, 어휘, 문법, 유용한 표현, 상황별 대화, 웹 과제, 듣기 연습, 문화 소개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자가 듣기 연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듣기 연습을 하고자 할 경우 듣기 연습 항목을 클릭해서 자신이 연습하고자 하는 듣기 과제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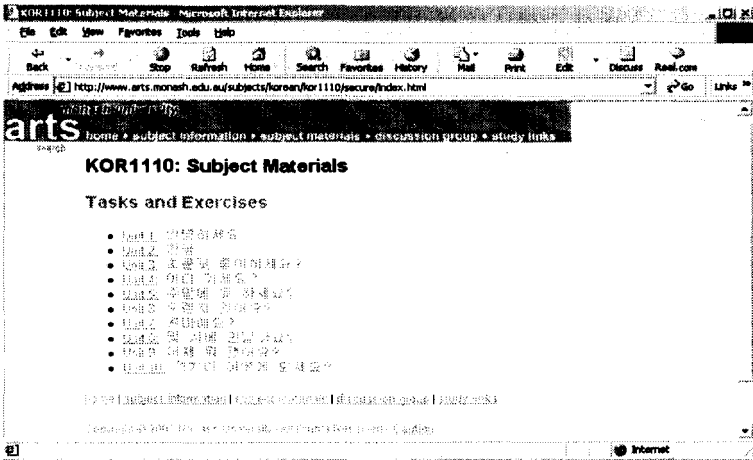
그러면 이를 실제 교육과정에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살펴보자.

1. 다양한 자료를 웹의 학습자료 센터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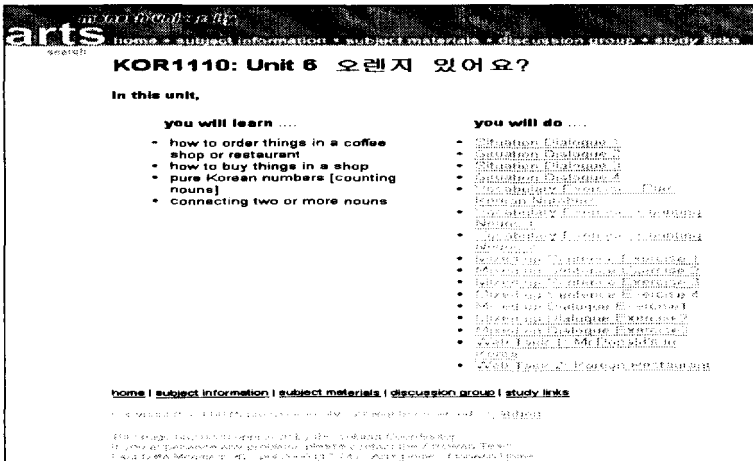
(그림 1) Monash 대학교 한국학과의 학습 자료 센터

2. 교과과정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그림 2) Monash 대학교 한국학과 일 학년 일 학기 온라인 교재

3. 단원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평가와 연계 지어서 계획한 다음, 해당 학습 자료를 웹 학습 자료센터에서 골라서 웹 페이지로 작성한다.



(그림 3) Monash 대학교 한국학과 일 학년 일 학기 온라인 교재

4. 예를 들어 '음식 주문'에 대해서 학습할 경우 수업시간에 이와 관련한 문법 설명 및 역할 놀이를 수행한다.

● TASK 뭐 드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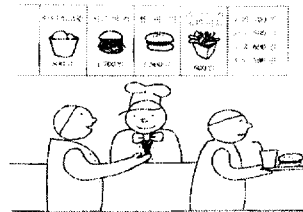
Roleplay A : Customer

You are in a fast food restaurant "Burgeroo" with your friends. You can see the menu in the picture. On the item sheet below, decide the quantities of each item that you will order. Give the order to your partner who is playing the shop assistant. When finished, check that he/she has taken the order correctly. Your partner should start the conversation (refer to the example dialogue).

Roleplay B : Shop assistant.

You work in a fast food restaurant "Burgeroo". Your partner who is playing the customer will give you an order from the menu in the picture. Fill out the order sheet according to what the customer tell you. After you have finished show your partner what you have written to check if you have taken the order correctly. You should start the conversation (refer to the dialogue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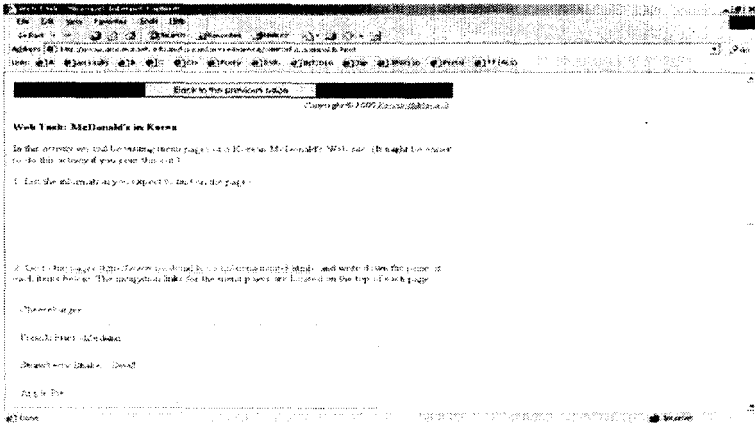
아이스크림	개
치즈버거	개
햄버거	개
프렌치 프라이즈	개
콜라	컵
커피	잔
우유	컵
홍차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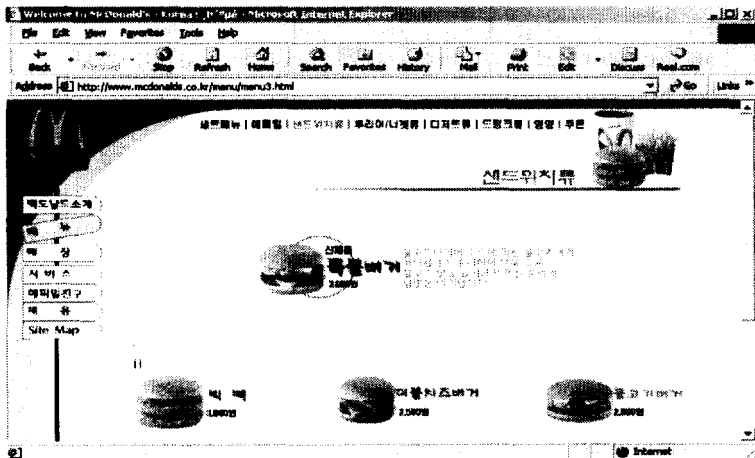
(그림 4) 역할 놀이

5. 컴퓨터 수업 시간에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이 때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웹 과제 (McDonald's in Korea)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이 컴퓨터 시간에는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림 5) 웹 읽기 과제 : 맥도날드



(그림 6) 웹 읽기 과제 '맥도날드'를 통해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는 웹 사이트

6. 이 단원과 관련 있는 듣기 과제를 집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주말 시험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 과제(Task) 32 ◀ ORDERING THINGS IN A FAST FOOD RESTAURANT

☞ 문형(EXPONENT)

A 주세요. Give me A, Please.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얼마예요? How much is it?

A(price) 원이에요. It's A won(Korean currency unit).

☞ 필수 어휘(ESSENTIAL VOCABULARY)

아이스크림 ice cream 치즈 버거 cheeseburger 햄버거 hamburger

콜라 coke 커피 coffee 우유 milk

홍차 indian tea 하고 and

개 general item counting noun

프렌치 프라이즈 French fries

어서 오세요 routine expression meaning welcome

합계 sum

Sino-Korean numbers up to 9,000 : 백 hundred 천 thousand

Pure Korean numbers up to 4

☞ You are going to hear some dialogue that might happen in a fast food restaurant. Listen for the number of items that a customer is ordering and the price. Write down the number and the price on your sheet. Ready? Listen!

1.

아이스크림	_____개
치즈버거	_____개
햄버거	_____개
프렌치 프라이즈	_____개
커피	_____개
우유	_____개
홍차	_____개

합계	_____원

2.

아이스크림	_____개
치즈버거	_____개
햄버거	_____개
프렌치 프라이즈	_____개
커피	_____개
우유	_____개
홍차	_____개

합계	_____원

(그림 7) 듣기 과제

이상의 절차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재는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 및 평가

와 연계되고 교과과정 안에 통합되어 긍정적인 학습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앞에서 실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과 실제 자료를 계속 수정 보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여기서 제시한 웹 과제는 이를 해결해 준다.

웹에서의 실제 자료의 사용은 흔히 중급 이상의 언어 구사력을 가진 학습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초 학습자들도 제한적이지만 언어 수준에 맞추어 개발하면 사용할 수 있다. 보물찾기(treasure or scavenger hunts), 웹 활동(web activity), 웹 연습(web exercise) 등으로 불리는 웹 정보 사냥이 여기에 속한다(조인정, 1998).

웹 읽기 과제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학습을 위해 언어적인 면에서 조작되어진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할 수 있게 한다. 또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 또 이런 유형의 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서도 할 수도 있고 서로 협동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 따라서 웹 정보 사냥 과제야말로 호주처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학습 자료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자료 중의 하나이다.⁵⁾

4. 맺음말

지금까지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중점으로 논의 한 것은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재의 현황이 아니라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5) 웹 과제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일링 리스트 TKFSL-L을 통해 2000년 6월 21일부터 실시된 웹 과제 개발 워크숍에서 오고간 이메일 내용을 참조 바람.
http://www.arts.monash.edu.au/korean/centre/teaching/workshop2000.html

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학습 상황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출판된 교과서는 학습자나 학습자에 맞춰서 계속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재 개발의 방향은 보조 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성주의 학습법에 근거를 두고 학습자들이 미래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개발된 자료들을 학습자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학습 자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앞으로의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교육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결정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고 평가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교재의 개발은 이 역동적인 과정 안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습 동기나 학습 책략 등이 다른 학습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교과서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해당 학습 상황에 맞는 교재를 개발 혹은 선택하여야 하는데 출판된 교과서는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에 맞춰서 계속 바꾸기가 어렵다.

또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어 특성만 뿐만 아니라 문화의 특성이 잘 반영된 교재를 개발·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는 학습자가 그 목표 언어 화자를 접할 때 태도, 이해, 그들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인지를 해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화 소개는 자칫하면 정형화된 이미지를 묘사하기 쉽고 이는 목표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실제 자료의 개발은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을 위해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이다.

어떤 교재를 개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된 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광고를 이용한 문화 학습(Cho, 1999), 웹 게시판과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한 학습법(조인정, 2000) 등 실제 자료와 문화 학습 및 정보 기술 사용능력이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습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덕기(1996), 『영어 교육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영아(1995), 「한국어 듣기 교육 : 문제점과 개발 방향」, 『교육 한글』 8.
- _____(1995), 「호주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회지』 12.
- _____(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 『이중언어학회지』 13.
- _____(1997), 「한국어 교육에서의 컴퓨터 학습 도입 방안」, 일암 김응모 교수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한국 어학의 이해와 전망』, 박이정.
- 조인정(1998),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 읽기 지도」, 『영어교육입문』, 박영사.
- Alderson, J. and D. Wall(1993), "Does Washback Exist?", *Applied Linguistics*, 14.2 : 115~129.
- Brosh, H.(1997), "The Sociocultural Message of Language Textbooks : Arabic in the Israeli Setting", *Foreign Language Annals* 30, 3 : 311~326.
- Cho, I.(2000), "Constructivist Approach to Development of Web Courses", *Korean Language in America* 5 : 43~56.
- Cho, I.(2000), "Integrating Technology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 Teaching Today's Students for Tomorrow's Society", *Korean Language in America* 5 : 57~70.
- Cho, Y.(1998), "Test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Continuous Assessment in Class", S. Lee and D. Park(eds.), *Perspectictive on Korea*, Sydney : Wild Peony : 353~366.
- Cho, Y.(1999), "Integrating culture with language in context", *Linking Korea and Australasia for the New Century*, Proceedings of the first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ia Conference, Sydney.
- Johnson, R. J and M. L. Liaw.(1996), "Negotiating meaning over the Internet : matching Taiwanese EFL students with U.S. preservice teachers", F. L. Brochardt, C. L. Bradin, E. Johnson and Laura Rhodes(eds), *CALICO '96 Annual Symposium Proceedings of the Computer Assisted Language Instruction Consortium*, Durham, North Carolina : CALICO and Duke University.
- Johnson, R. K.(ed.)(1989),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apper, C. K.(1995), "Approach to study and life-long learning : some Canadian initiatives", G. Gibbs(ed.), *Improving Students Learning Through Assessment and Evaluation*, Oxford : Oxford Centre for Staff Development, Oxford Brooks University.
- Morrow, K.(1986), "The evaluation of tests of communicative performance. In Portal", M., editor, *Innovation in language testing*, Windsor : NFER/Nelson, 1~13.
- Roblyer, M. D., J. Edwards and M. A. Havriluk(1997), *Integrating Educational Technology into Teaching*,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Merrill.

부록

Korean language interactive book for the advanced level의 색인

TASK	TOPIC	LEVEL	FUNCTION
1 : 소개하기	Introducing people	Intermediate, Advanced	Introducing oneself and others in a formal setting
2 : 원, 별 말씀을 다....	Exchanging formal greetings	Intermediate	Exchanging greetings using set phrases which conform to high formality
3 : 태극기	The Korean national flag	Advanced	Talking about the origin of T'aegukki, and explaining the meanings of components of T'aegukki
4 : 단군신화	Legend about the founder of Korea, Tan-gun	Advanced	Talking about the content of the Tan-gun legend and conjecturing about the nature of Ko-choson society
5 : 사물놀이	Samullori	Advanced	Talking about the history and the composition of Samullori
6 : 코는 어떻게 생겼어요?	Describing people	Intermediate, Advanced	Describing people whom you saw a short period of time.
7 : 여름 방학	Summer vacation	Intermediate	Describing how one spent his/her vacation to others.
8 : 핑계대기	Giving excuses	Intermediate	Inviting, accepting and making excuses stating obligations for oneself and others
9 : 쇼핑하기	Shopping Around	Intermediate	Shopping around for certain items to purchase them for the best price available in the market
10 : 지하철 타기	Taking Subways in Seoul	Intermediate, Advanced	Figuring out how to get to a destination by Seoul subway.
11 : 요리법	Recipe	Advanced	Describing/Demonstrating how to make a simple dish
12 : ...어 [가꾸/가지구]	Being Informal/ Colloquial	Intermediate, Advanced	Being able to use informal/colloquial expressions with ...어 갖고[가꾸]/가지고[가지구]

TASK	TOPIC	LEVEL	FUNCTION
13 : 인터뷰	Interview	Intermediate, Advanced	Interviewing people and reporting the result in class
14 : X자 Y자를 쓰세요	What's your father's name?	Intermediate, Advanced	Asking and giving elderly people's name properly
15 : 전화 자동응답기	Answering machine	Intermediate	Being able to record personal greetings and messages on an answering machine.
16 : ... (으)니까 vs. ...어서	...(으)니까 vs. ...어서	Intermediate	Giving a reason
17 : 복잡한 가족, 친척 호칭	Kinship terms	Intermediate, Advanced	Being able to understand and use the complex kinship terms in Korean
18 : 수동어미, 사역어미 이, 히, 리, 기, 우, 구, 추	Passive and Causative	Intermediate, Advanced	Being able to use the correct passive and causative suffixes
19 : 서울에서 있었던 경험	The Two Location Markers 에 vs. 에서	Intermediate, Advanced	Being able to use the correct location marker in Korean
20 : 한국 전통혼례	Traditional marriage customs	Advanced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Korean marriage customs

TASK	TOPIC	LEVEL	FUNCTION
1 : 해외 여행	Overseas travel	Intermediate	Asking for and giving information ; Talking about holiday activities
2 : 어디 안내해 드릴까요?	Using travel brochures	Intermediate	Asking for and giving information
3 : 기념품을 사려면 어디에 가야 해요?	Finding a destination using a map	Intermediate	Asking for/ Giving information ; Expressing possibility/ Impossibility
4 : 세관에서	Going through customs at the airport	Intermediate	Making statements
5 : 분실물 센터에서	At the lost and found counter	Intermediate	Describing things
6 : 어디로 간다고요?	Communication skills	Intermediate advanced	Maintaining communication
7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Communication skills	Intermediate advanced	Maintaining communication
8 : 어디로 모실까요?	Going around by taxi	Intermediate advanced	Giving directions to a taxi driver
9 :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Learning languages	Intermediate advanced	Asking for and giving advice
10 : 교환 학생 프로그램	Studying overseas as an exchange student	Intermediate advanced	Comparing ; asking for and giving information
11 : 전화 잘못 걸렀습니다	Speaking on the telephone	Intermediate advanced	Telephoning ; asking for and giving information
12 : 어떤 차를 살까요?	Buying a car	Intermediate advanced	Confirming ; Negotiating
13 : 월부로 사면 되잖아요	Persuading your roommate to buy things	Intermediate advanced	Persuading ; Negotiating ; Justifying
14 : 신용 카드	Convincing a customer to apply for a credit card	Intermediate advanced	Convincing
15 : 취직 면접	Job interview	Intermediate advanced	Carrying out an interview
16 : 벌금 고지서	Justifying nonpayment of fine	Advanced	Justifying
17 : 퀴즈 쇼	Quiz show	Advanced	Giving an explanation or a talk ; inquiring about or expressing knowledge

TASK	TOPIC	LEVEL	FUNCTION
18 : 환경 보호	Greenhouse effect	Advanced	Discussing or giving information
19 : 결혼 꼭 해야 하나요?	Type of marriage	Advanced	Discussing or giving information
20 : 밥하고 설거지하는 아버지	Sex roles	Advanced	greeing, disagreeing and comparing

TASK	TOPIC	LEVEL	FUNCTION
1 : 이 아까씨 어때요?	Matchmaking	Intermediate	Asking about and describing people's features, age, build and characters
2 :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If ...	Advanced	Talking about hypothesis
3 : 재미있죠?	Adverb	Intermediate	Talking about actions using adverbs
4 : 다음 주에 숙제 내도 됩니까?	Permission	Intermediate	Asking for permission and stating prohibition
5 : 왜요?	Reasons	Intermediate, Advanced	Asking and giving reasons
6 : 시험이 언제래요?	Exams, accidents and messages	Intermediate	Reporting what has been said
7 : 숫자 말하기	Stating numeric information	Intermediate	Asking for and giving factual information
8 : 경치가 어때요?	Scenery	Intermediate, Advanced	Describing locations and scenes
9 :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Election	Intermediate, Advanced	Speculating
10 : 예약을 하지 그랬어요?	Regretting	Intermediate	Giving retrospective advice/talking about regrets
11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Agreeing and disagreeing	Intermediate, Advanced	Agreeing and disagreeing
12 : 더 좋지 않아요?	Persuading	Intermediate, Advanced	Persuading people/ Expressing preferences
13 : 재미있던데요	Memories	Intermediate, Advanced	Remembering past events
14 : 표가 있어요?	Booking a ticket	Intermediate	Booking a ticket over the phone
15 : 말씀 좀 전해 주시겠어요?	Telephoning	Intermediate	Inquiring and leaving messages
16 : 기분이 어때요?	Feeling	Intermediate, Advanced	Describing feelings
17 : 호주에서는 군대에 가야 해요?	Duty	Intermediate	Talking about obligations
18 : 식사 후 한 알씩 드세요	Buying medicine	Intermediate	Talking about illness and medication
19 : 뭐든지 할 수 있어요	Any ...	Intermediate	Emphasizing something
20 : 낙제할 것만 같아요!	Doubts	Intermediate	Expressing doubts and suppositions

TASK	TOPIC	LEVEL	FUNCTION
1 : 전화 걸기	Telephone usage	Intermediate	Talking about individual telephone usage and habit
2 : 내가 자주 가는 곳	The place where I visit often	Intermediate	Describing places
3 : 불평하기	Making a complaint	Advanced	Complaining about the noise
4 : 비평하기	Criticising university facilities	Advanced	Criticising the problems
5 : 옷 고르기	Shopping for clothing	Intermediate	Shopping for a pair of shoes, clothes and a necktie
6 : 방학 동안 잘 지냈어요?	Did you have a good holiday?	Intermediate	Talking about personal experiences
7 : 여행하기	Travel to Korea	Intermediate	Making travel arrangements
8 : 졸업한 후에	Future plans and hopes	Advanced	Explaining preferences
9 : 여가와 스포츠	Sports and leisure	Advanced	Talking about leisure activity
10 : 여성과 직장	Women and work	Advanced	Expressing opinions
11 : 만약에	If	Advanced	Using what-if statement
12 : 보고하기	Reporting	Intermediate	Inquiring and reporting
13 : 잡지책	Magazine	Intermediate	Describing magazine articles
14 : 나의 가계부	Book keeping	Advanced	Describing/ demonstrating how to plan for weekly spending by book keeping
15 : 팔방미인	Good at everything	Intermediate	Describing one's ability
16 : 우리집	Our house	Intermediate	Describing one's house or apartment
17 : 교육제도	Education system	Intermediate	Discussing about education system
18 : 명절	Festive season/ celebration	Intermediate	Describing traditional festive season
19 : 올림픽	Olympic Games	Intermediate	Describing sports of Olympic games
20 : 텔레비전 프로그램	TV programme	Intermediate	Describing TV programme

Abstrac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Australia

Young-A Cho

There is also an examination of how these teaching materials have been used with special regard to whether they are used by institutions other than the one in which they were developed. It is argued the reasons for not using materials across institutions are as follows :

- 1) difficulties in integrating with the existing curriculum ;
- 2) difficulties in assigning assessment ;
- 3) a lack of effective learning outcomes compared to the amount time invested ;
- 4) not developed here syndrome ;
- 5) lack of authenticity.

These discussions lead to a new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materials :

1) more variety of authentic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and they also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flexible way that they enable teachers and learners to select according to the learner groups needs.

2) they should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a constructivist approach taking into account the skills and knowledge required by a future society. The Virtual Centre for Learning and Teaching at Monash

University is also suggested as a model for creating a rich learning environment which can support classroom teaching as well as autonomous learning.